

“대풍 나주배, 판로를 찾아라”

올 봄 작과율 높고 낙과 피해 없어 작년보다 20%↑ 타지역도 작황 호조...서울 등 대도시 소비처 찾아야

작황 호조로 올해 나주배 대풍이 예상되고 있어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주배 조합에 따르면 올 봄 개화기때 인공수분에 최적의 날씨가 계속돼 예년에 비해 높은 작과율을 보였다.

또 매년 반복되던 서리피해도 전혀 입지 않았으며 낙과도 없어 기상 이변이 없을 경우 사상 유례없는 배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나주배는 매년 6만5천여이 생산돼 왔으나 올해는 작황 호조로 20%가량 증가한 7만5천여의 수확

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청도와 경기도 등 타 지역 재배단지도 작황이 좋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수확이 시작된 조생종 품종인 원황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 가량 떨어진 7.5kg 1상자당 2만 3천원선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나주배농협 이관수 상무는 “지난 6일 생산자단체 협의회에서 조생종 품종의 대미 수출단가를 지난해 대비 5% 인상했으나 신고배 품종이 본격 출

하될 경우 자칫 생산비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나주배가 타 지역 배보다 수확기가 일주일 가량 빠른 잇점을 활용해 추석절에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배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최근 과잉 생산된 전복을 판매하기 위해 안도군이 각계각층을 통해 활발한 관측활동을 벌이는 것 처럼 서울 등 대도시 소비처를 상대로 다양한 나주배 판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재배 농민 김모(43)씨는 “타지역에서도 배 재배가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나주배 명성만으로 판매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판촉활동 전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여름철 보양식품 ‘마계탕’ 인기

무안군, 닭에 인삼 대신 마늘 넣어 개발

무안군이 여름철 새로운 보양 식품인 ‘마계탕’ 홍보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 5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에게 마계탕을 중식으로 제공했다.

마계탕은 마늘·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이 지난해 개발한 보양 식품으로 닭 1마리에 인삼 대신 마늘 50여 쪽과 대추 3개, 생강 1쪽을 함께 넣어 끓인 것으로 ‘삼’ 대신 마

늘의 ‘마’ 자를 써 ‘마계탕’으로 불리고 있다.

무안군이 마계탕 홍보에 나선 것은 마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무안지역에서는 마늘 재배로 연간 4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마늘소비가 곧 바로 주민소득증대로 이어진다.

특히, 무안마늘은 황토에서 재배해 노화방지, 해독작용, 성인병

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품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마계탕을 널리 홍보해 전주비빔밥처럼 무안의 향토 음식으로 대외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계탕은 무안읍내 10여 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인근 목포와 함평 등지에서 식도락가들이 찾아오는 등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동창 5일시장으로 장보러 오세요”

세지면, 대형 아치 세워 멜론·배·토하젓 등 홍보

“나주시 세지면 ‘동창 5일 시장’으로 장보러 오세요!”

나주 세지면사무소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주 세지면은 동창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장입구에 대형 홍보 아치를 설치했다.



세지면 홍보용 세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창 5일 시장은 세지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2일, 7일장이 선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천년의 신비’ 강진 청자빛기 체험



지난 9일 개막한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구면 고려청자촌 일대에서 열린 청자빛기 체험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암군, 기찬랜드 수질개선 나섰다

이달말까지 쓰레기 줍기 운동·피서객 계도

월출산 아래 자리잡은 웰빙관광지인 ‘기(氣)찬랜드’가 피서객의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본보 7일자 10면)와 관련, 영암군이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수질관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영암군은 “지난 7월 12일 개장 이후 15만 명이상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찬랜드의 수질관리를 위해 직원을 증강 배치하는 등 청소 시스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쓰레기를 줍고,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피서객을 계도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청원경찰과 아르바이트 학생을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매일 기찬랜드를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장 대정소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쓰레기를 버리거나 금지

된 취사활동을 하고, 때를 미는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등 강력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수영복·수영모 착용 의무화 검토 등 수질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월출산 천황봉에서 발견된 1급 맥반석 물이 사용되는 기찬랜드의 수질이 피부 미용 등에 효과적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서객이 급증한 상태”라면서 “특히 피서객이 몰려드는 주말과 휴일이면 이들이 쏟아내는 각종 오물과 무질서 행태가 반복돼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출산 용지골에 자리잡은 기찬랜드는 6만7천㎡ 부지에 110억원의 조성비가 투입됐으며, 1만 8천㎡의 맥반석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대형 사방댐과 5개의 자연형 풀장, 팔각정, 구름다리 등 각종 편의시설을 배치해 올 여름 최고의 피서 명승지로 자리잡고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지역 인재육성 ‘우리 손으로’

고흥 공무원들 월 1만원 기부 연 1억원 조성키로

고흥군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청 공직자들이 교육여건 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

고흥군 산하 800여 공무원들은 열악한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자동 이체해 연간 1억여원의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1인당 월 최소 1

만원 이상 기부에 나서는 한편 유관 기관이나 출향 향우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은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군민, 학부모, 출향 향우들까지 동참을 유도해 교육발전기금을 100억원까지 확충하고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완도해경, 내달 1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가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추석연휴 특별수송이 종료되는 오는 9월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이 처벌대상으로 5t 이상 선박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두석 완도 해경서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 등은 자칫 대형 해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해상교통 질서 확보를 위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영광 굴비·모시잎 송편 등 ‘지리적 표시제’ 추진

영광 특산물인 굴비와 모시잎 송편 등 전남지역 대표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가 추진된다.

영광군은 최근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는 전담 팀을 구성했다.

지리적 표시제가 추진되는 품목은 굴비, 모시잎 송편, 청보리 한우, 활보리쌀 등 4가지로 영광

군은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지리적 표시 등록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달 중 굴비의 지리적 표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품목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가장 비싼 수돗물 먹는 여수시민

1당 940원...순천·광양보다 비싸고 광주의 1.8배 자체 수원 없고 고지대 많아 관리비용 많이 들어

여수시의 상수도 요금이 광주·전남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상수도 요금은 t 당 940원(가정용·공업용 등 전체 수도요금 평균 판매단가)으로 순천시(642원), 광양시(699원), 목포시(743원) 등

전남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비싸고 특히 광주광역시(528원) 상수도 요금의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수시 상수도 요금이 타 자치단체 보다 비싼 이유는 자체 수

원이 없어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다 고지대가 많아 수도관 등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수지가 많지 않아 물 공급을 수자원공사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요금을 98% 현실화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싸다”며 “상수도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화해의 제스처?

보석으로 풀려난 담양군수, 前 군수 사람들 대거 복귀 인사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정섭 담양군수가 직무복귀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담양군은 11일자로 4~9급 직원 60명 거랑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단행된 전남도 인사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군수가 4일 출근을 재기한 지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前) 군수의 사람’으로 분류돼 음·면으로 전보됐던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복귀한 것을 두고 한달여간 감옥생활을 경험한 이 군수가 보낸 ‘화해의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군수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보다 부군수 등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전직 군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전보된 직원들을 복귀시킨 것은 군수가 한때 구속되면서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화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이 군수가 인사비리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가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농협 장성군지부 ‘단감 아카데미’

120여 농가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컨설팅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지부장 박광호)가 급변하는 농업·농촌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최근 황동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 아카데미 단감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조합원 아카데미에는 서재만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과장이 강사로 초빙돼 120여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교육과 컨설팅이 실시됐다.

장성군지부는 또 연합마케팅사업 확대를 위해 배, 토마



토 작목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재배기술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주택 전소로 뿔뿔이 흩어진 나주 일가족 ‘생활고 비관’ 아들도 음독자살 기도

각계 성금 모금 활발

화재로 주택을 잃고 할머니와 아들내외, 손자와 손녀 등 3대 6명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나주 노안 일가족 소식(본보 1일자 10면 보도)이 전해지면서 각계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한 아들이 음독자살을 기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김모(73)할머니 집에서 불이 주택 전체가 전소됐다. 이때문에 김 할머니는 마당 한편 헛간, 40대 아들 내외는 마을회관, 손자와 손녀들은 친구집을 전전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장학생인 큰 손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으며, 금성고 3학년인 둘째 손자도 D대학교 장학생으로 수시합격했다. 또 미용고 2학년인 손녀는 사이클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유능한 선수로 삼비군(주니어대표)에 선발돼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이들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노안면 직원들이 20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나주장사회사(대표 김대현) 100만원, 노안면 청년회(대표 황정현) 30만원, 노안면 이장단(대표 노순환) 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대표 전귀남) 10만원, 노안면 미나리작목반(대표 노명학) 10만원, 농업경영인회(대표 김철동) 10만원, 노안 대성영농조합법인(대표 노종원) 20만원 등 각계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생활고를 비관한 아들 흥모씨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